

2005. 6. 10

충주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관련  
건 의 문

충청북도의회

# 충주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관련 건의문

존경하는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 달성을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도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가의 주요 개발축에서 제외되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우리지역이 기업도시 건설 취지에 부합된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다음과 같은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충주시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충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평택~음성~충주~삼척), 충북선 전철화 및 실시계획중인 중부내륙철도, 국도 3호선, 19호선, 36호선 등 4차선 고속화 국도 완비와 수도권 1시간대, 전국 2시간대 그리고 40분 거리의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완벽한 교통기반시설 구축으로 국토개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주호 광역상수도의 풍부한 용수, 연간 844만kW의 전력공급, 초고속통신망 구축, LNG의 안정적인 공급, 인근 6개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의 연구인력과 시설 등 인적자원 확보가 용이하고 풍부한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중원문화의 발상지로서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과 수안보 온천 지구 등 천혜의 자연과 관광 휴양환경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 첨단 산업 도시로 개발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셋째**, 건설예정지역은 국·공유지가 76%를 차지하고 있어 저렴한 토지수용과 개발의 잇점을 갖고 있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충주지역은 교통 및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양호한 주변 여건과 무한한 성장잠재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로서의 성공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시범사업의 최적지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건설교통부장관님!**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21세기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충주시가 기업도시로 건설되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업 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5년 6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